

결정적일 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en It Matters Most?

룻기 1장 15-22절

룻1:15-22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다 잃고 가난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21). 그러나 성경은 빈 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고 무엇이 남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나오미에게는 ‘누가’ 남아 있었나요? 룻에게는 ‘누가’ 남아 있었나요?

3.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나오미에게 룻이, 룻에게는 나오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남아 있고, ‘며느리’가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어머니가 남았다’ 혹은 ‘며느리가 남았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불편한 느낌인가요?

4. 7월 21일 금요성령집회 설교 제목이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복덩이와 싸우게 한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덩이를 주시는데, 마귀는 그것과 친해지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그 복덩이를 변변찮은 것으로 치부하게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았다’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볼 때 좋은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불편한 느낌이 드나요?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나요? 아니면 변변찮은 것으로 느껴지나요?

5. 하나님은 룻에게 남아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나오미의 먼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알게 하시고, 그 만남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물뿔, 어린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묵상해보고, 그 의미를 나눠봅시다.

6. 하나님이 내 손에 남아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본문 중에 하나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룻2:11을 읽고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게 된 이유를 말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 제목과 결부지어 생각해봅시다.

